

타운뉴스 종교면은 교회, 사찰, 성당 등 종교기관과 함께 만들어 갑니다. 귀 기관에서 홍보하고 싶은 행사나 기사거리가 있으면 이메일 (info@townnewsusa.com) 또는 전화 (714-530-1367) 로 알려주세요.

종교



### 행복을 말하자(신명기 33:29)

## ‘팬데믹과 나의 믿음’ 공모전

### 한인연합감리교회

미주연합감리교회 한인교회총회 (회장 이철구 목사)가 ‘팬데믹과 나의 믿음’ 이란 주제로 공모전을 연다. 분야는 신앙간증, 신앙수필, 시, 영상이며 간증, 수필등으로 ●성도들에게 희망과 위로가 되는 글 ●믿음의 가정과 교회 공동체를 품어주는 글 ●우리의 삶을 말씀에 비추어 기록하는 저널 ●뉴노말 시대에 복음을 증거하는 믿음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야 한다. 간증과 수필은 MS WORD 기준 글자 크기 12pt, 줄 간격 150이며 영상은 3분 이내의 길이여야 한다.

한인연합감리교회 성도 누구나 공모에 참여할 수 있으며 응모, 접수, 심사, 시상 등의 모든 과정은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공모 기간은 2월 17일부터 4월 4일(부활절)까지이다.

심사를 거쳐 믿음상(전체, 상금 1천 달러), 소망상(분야별, 3백 달러), 사랑상(분야별, 2백 달러), 은혜상(분야별, 1백 달러) 및 기쁨상 등을 시상하며 입상작은 한인연합감리교회 말씀묵상지 <기쁨의 언덕으로>와 유튜브 <기쁨의 언덕으로 TV> 채널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 ▶ 작품 제출: akcumc02@gmail.com
- ▶ 문의: (856) 424-9686

## 임직감사에배 동양선교교회

동양선교교회(담임목사 김지훈, 424 N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4)가 2021 임직감사에배를 지난 2월 16일(화) 오후 5시 교회 본당에서 대면, 비대면을 병행하여 개최했다. 이 행사는 유튜브로 생중계됐다.

이날 시무장로에 김광찬, 조중구 장로, 시무권사에 김성은, 전하순, 정유진, 채영자 권사가 임직했다. 이날 예배에서 김광수 목사(미주성결교회 총회 전 총회장)는 “임직자들은 오늘의 환난을 오히려 즐거워하며 장차 주어질 영광을 위해 헌신하고 충성하길 바란다.” 고 말했다.

- ▶ 문의: (323) 466-1234

“행복”은 모든 사람이 바라는 소망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향해 “행복자” 라고 말씀합니다(신 33:29). “장차 행복자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일을 하면 행복하게 될 것이다” 라는 조건도 아닙니다.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우리가 행복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행복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한 행복자로서 우리는 행복을 말해야 합니다.

첫째, 아버지가 있어 행복하다  
우리에게는 아버지라는 행복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계십니다. 나를 낳아준 아버지가 계십니다. 나를 교육하는 스승 아버지도 계십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아버지” 해보십시오. 이름만 불러도 힘이 납니다. 아버지가 계시기에 우리 인생은 희망입니다. 아버지와 함께하기에 우리의 삶은 만사형통입니다. 아버지는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마 7:11). 우리로 하여금 아들의 영광을 누리게 하십니다(눅 15:22). 우리만큼 아버지의 사랑을 입은 자는 없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라 다 여호와와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신 33:29).

아버지는 행복의 근원이십니다. 그런 아버지께 말합니다. 아버지께 대해 말합니다. 아버지와 함께 말합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하나님 아버지를 기뻐하라) 저가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네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네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시 37:4-6).

둘째, 나라가 있어 행복하다  
당해 보지 않으면 모르는 서러움이 있습니다. 집이 없는 서러움, 타향살이 하는 서러움, 직장을 잃어버린



서러움. 당사자가 아니면 그 고통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서러운 것이 있습니다. 나라 잃은 서러움입니다. 물이 없으면 물고기도 없듯이 나라를 잃으면 다 잃은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현대인은 나라가 행복임을 잊고 있습니다. 나라가 있다는 것은 미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울타리가 있다는 것이고, 내가 있다는 것이고,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우리에게 두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조국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도 있고, 조국 대한민국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이 두 배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 6:33)고 말씀하십니다.

셋째, 가정이 있어 행복하다  
시대가 바뀌면서 급증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집안에서 기르는 애완동물입니다. 또 한 가지는 우울증의 급증입니다. 남녀노소 빈 부귀천을 가리지 않고 우울증을 앓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이 증가하는 이유는 ‘고독’입니다. 사람들이 외로워합니다. 소외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 어떤 환경에서도 행복을 느끼지 못합니다.

인간이 가장 행복한 순간은 가정이 시작될 때입니다. 가정에는 최고의 사랑이 있습니다. 바로 부모로부터 받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닮은 것이 부모님의 사랑입니다. 가정은 내가 온전해지는 자리입니다. 가정은 우리의 미래가 있는 자리입니다. 가정은 가장 가까이 있는 행복입니다.

넷째, 사명이 있어 행복하다  
사람들은 세상이 두렵다고 말합니다. 살기 너무 힘들다고 투덜댑니다. 그러나 문제는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더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에 계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사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요 9:4). 사도 바울도 사명이 있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함에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행 20:24)고 고백합니다. 사명이 있기에 죽음도 두렵지 않았습니까. 사명이 있기에 고난을 통해 오는 영광을 볼 수가 있었습니까.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족히 비교할 수 없도다” (롬 8:18).

우리의 삶은 마치 외줄타기와 같습니다. 밑을 보면 두려워서 떨어집니다. 내가 도착해야 할 목표지를 보고 가면, 건너갈 수 있습니다. 땅의 것을 말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말합니다. 나의 사명을 말하고, 우리 가족의 사명을 말합니다. 또한 일터의 사명과 교회의 사명을 말합니다. 사명이 행복이 됩니다.

- 출처/최성규 목사 설교 중에서 -

# 좋은신문 알찬신문 ‘타운뉴스’에서 함께 일할 직원을 모집합니다.

개인의 작은 권리 하나도 소중하게 여기는 인간존중의 정신을 바탕으로 재미있고 유익한 기사와 한인들의 이민생활에 꼭 필요한 정보를 싣고 격조높은 기사와 광고만을 게재하는 ‘타운뉴스’와 함께 신문을 만들어 나갈 분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광고영업직 ..... 0명

제출서류 : 이력서 1부, 자기소개서 1부

E-mail: info@townnewsusa.com

14311 Valley View Ave. #202, Santa Fe Springs, CA 90670

